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책이 삶이 되는 인문도시 전주'

전주매일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음 12월 10일) 제29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해도 새만금산업단지 기업 투자협약 잇따라

전북도, 산하첨단소재 · 풍천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협약 체결

올해 새만금산업단지에 기업들의 투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인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전장부품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 소재, 산업용 냉장·냉동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으로 산단의 활용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화장품·의약품 관련 소재기업 ㈜산하첨단소재기업 및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제조기업 ㈜풍천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화장품·의약품 관련 소재기업 ㈜산하첨단소재기업 및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제조기업 ㈜풍천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하첨단소재 장재영 대표이사, ㈜풍천엔지니어링 이병천 대표이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산하첨단소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월 새만금산단 2공구 1만2,000㎡에 127억 원을 투자해 화장품, 의약품 등 정밀화학소재와 반도체 등 첨단재료의 생산을 위한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2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산하첨단소재는 2021년에 설립된 신설 법인이지만, 의약품 중간재를 생산·납품하고 화장품의 핵심 성분인 방부·보습제 성분인 헥산다이올의 기술개발을 완료한 유망한 벤처기업이다.

㈜산하첨단소재가 개발한 무색무취 헥산다이올과 일본·독일 등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중간소재를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하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천엔지니어링 역시 올 2월 새만금산단 1공구 7,000㎡에 23억 원을 투자해 현재 생산중인 냉각탑 추가 생산 및 최근 연구·개발에 성공한 백연 방지장치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19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풍천엔지니어링은 중국·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10여 가지 종류의 냉각탑을 생산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취득으로 제품 차별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풍천엔지니어링이 지난 2018년 기술 개발한 냉각탑 백연방지장치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아 환경문제가 중요한 화두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장재영 ㈜산하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국가발전과 사회공헌에 힘쓰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병천 ㈜풍천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군산 1공장에 이어 새만금에 2공장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관련 업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산하첨단소재와 ㈜풍천엔지니어링이 새만금 공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새만금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도, 도내 여행업계 1곳당 14일부터 80만원씩 지급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에 힘을 실어 주고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여행업계 민생회복 지원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도내 여행사에 8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여행업계의 경영회복 등을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도내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577개 업체다.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여행업 등록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서의 서류검토를 거쳐 계좌 입금 및 지역 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여행업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여행업)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다.

세부 업종 기준은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고 중복 등록한 업체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김승환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미래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작은 학교 등 2022년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의 존엄한 배움 · 성장에 집중"

김승환 교육감, 올 전북교육 주요 정책 발표

보편적 교육복지 세밀화 · 교육비 부담 경감 등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의 존재의 근거'는 '학생의 존엄한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이 지난 12년간 심혈을 기울여 온 '혁신 교육'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미래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작은 학교 등 2022년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와의 힘겨운 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정과 학교, 방역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다시 묻게 되는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김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에 가야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라도 학교에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상반된 질문이 공존한다며,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12년간 이어져 온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과 과제의 성과를 소개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 지난 12년간 신념으로 여기고 목표로 삼아왔던 것들이 '과연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첫 민선 전북교육감으로서 부딪혀야 했던 혁신의 고통과 과정을 잠시 돌아본 후 "부러질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난 12년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전북교육의 자존감"이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혹독했기에 오히려 우리의 소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서도 우리 교육이, 우리 학교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한다"며 "남은 6개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보람된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22년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세밀화,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부패 방지 시스템 강화, 다문화·저소득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험난한 시기를 함께 버텨내고서도 여전히 순정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 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린다"며, "자랑스런 여러분이 있어 전북교육의 고결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장은성 기자